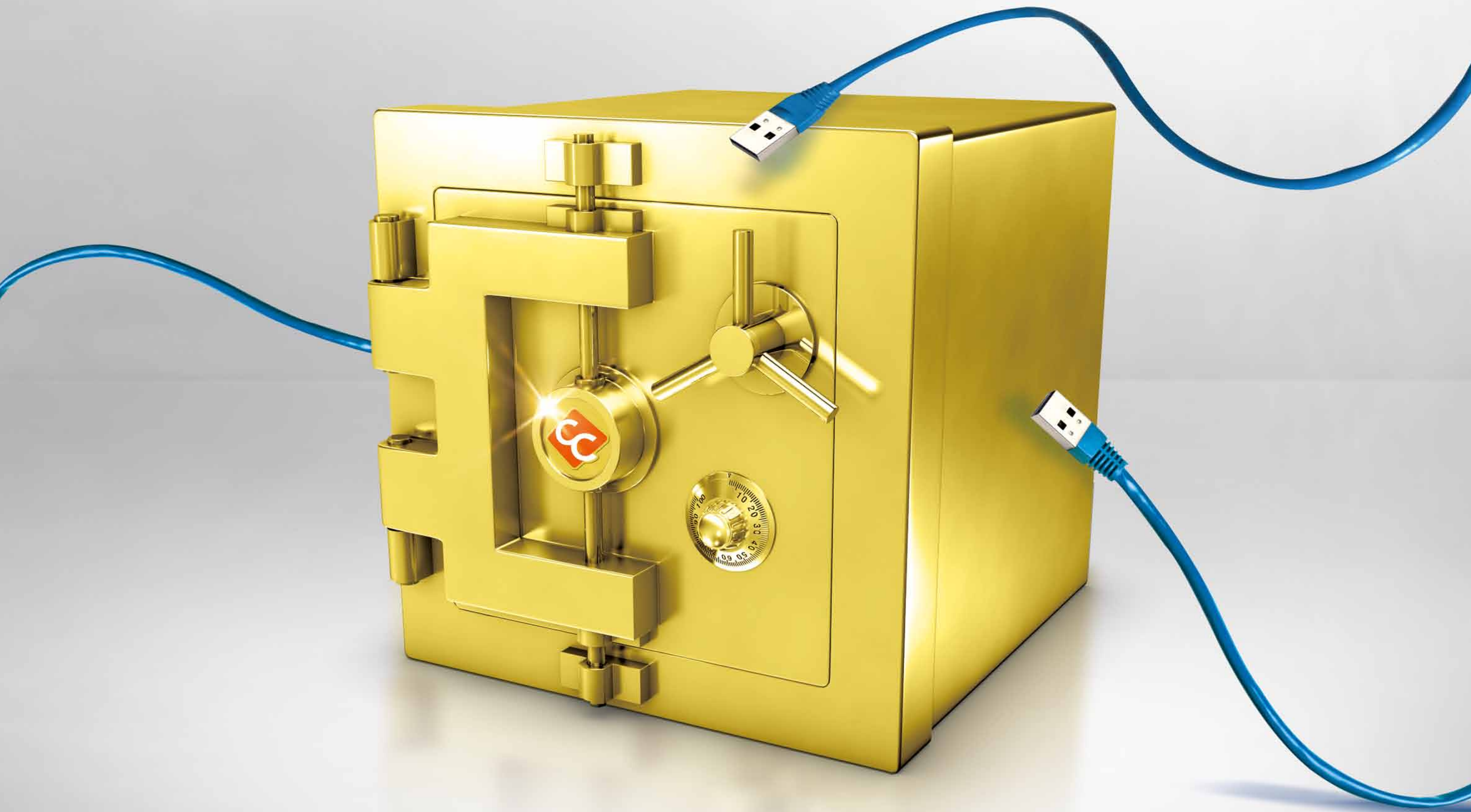


보호는 철저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개발기업과 사용(발주)기업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맡겨 주세요!
개발기업의 저작권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사용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소프트웨어 임치제이란 무엇인가요?

A.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개발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기업에 임치물을 교부하여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개발기업은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통해 무엇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저작권 등을 사용기업에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보유할 수 있어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용역계약일반조건(56조, 57조)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 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임치제도가 사용기업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주나요?

A. 사용기업은 폐업·파산이 빈번한 IT업계의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는 비용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나요?

A.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도 중복적인 개발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고, 사용기업은 사용권에 대한 비용만 지불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2012.06.23 공표, 2012.11.24 시행)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하한 적용의 예외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 사업 및 시범사업은 예외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임치는 필수적입니다.